

수십 년만 최악 인플레이 금리인상 도미노 오나

각국 중앙은행들 준비 캐나다·영국 등 최대 0.5% 전망 IMF, 신흥시장 자본 유출 우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준비가 걸린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올해 안에 3~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7% 올라 3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나란히 30년 만에 최고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영국과 캐나다도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오는 26일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 대형은행 뱅크오브노바스코샤는 캐나다은행이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 이달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시작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4.8%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영국도 물가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이미 팬데믹 이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2월에도 금리가 오른다면 2004년 이후 첫 연속 인상이 된다.

잉글랜드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봄에 6%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고 시장에서는 7%대 상승 예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준금리가 0.5%에 도달하면 잉글랜드은행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시작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잉글랜드은행의 보유 자산은 8,750억파운드(약 1,419조원)로 팬데믹 이후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아시아 나라들도 이미 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또 다시 0.25% 포인트 인상했으며 물가 급등 억제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렸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헝가리, 아르메니아 등도 줄줄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22년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블로그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신흥국이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지난해 5%로 1997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각에선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ECB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설문한 전문가들은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1분기 4.1%, 2분기 3.7%에 이어 4분기에는 ECB의 물가 목표치인 2% 아래인 1.9%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도 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ECB가 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통가 해저화산 폭발 여파로 페루 해변에서 기름에 오염돼 죽은 새. /연합뉴스

통가화산 여파 페루 환경 비상사태

쓰나미 유조선 덮쳐 기름유출 해변 21곳 오염...복구작업 착수

페루 정부가 기름 유출로 오염된 해변 복구를 위해 90일간의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체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루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염된 페루 수도 리마 주변의 해변 21곳이 "가장 치명적인 환경 재앙"에 맞닥뜨렸으며, 이곳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통가의 해저화산이 폭발한 후 페루 해안에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서, 당시 정유 공장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유조선을 덮쳤다.

화산 폭발한 장소와 페루는 1만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파도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다.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 6,000배럴이 추공장 270개 넓이의(174헥타르) 바다를 뒤덮었고, 해변, 자연보호구역까지 훼손됐다.

유출된 기름이 최대 40km 바깥까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페루 환경부는 "갑작스러운 기름 유출

로, 매우 우수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던 이 지역의 생태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새들은 기름에 덮인 채 폐사했고,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줄지어 생계의 타격을 잃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페루 환경부는 정유 공장 소유주인 스페인 기업 렘솔에 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렘솔은 유출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렘솔은 복구 작업에 인원 1,350명과 각종 장비 등을 투입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동토벽 냉매 누출

도쿄전력 "환경에 영향 없어"

페로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동토벽'에서 액체 냉매가 누출됐다. 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하에 매설된 동토벽을 이루는 파이프의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해당 부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23일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주위의 지반을 열리는 데 쓰는 냉매인 염화

칼슘 수산화물 보관 탱크 4기 중 2기의 수위가 내려간 것을 발견한 뒤 동토벽 주변을 조사해 냉매 누출을 확인했다.

도쿄전력은 보관 탱크의 수위 변화를 근거로 약 4톤의 냉매가 누출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누출된 냉매가 방사능 오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냉매가 새더라도 동토벽 자체가 녹기 시작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들어 지하수 유입을 억제하는 기능은 유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토벽은 지하수와 빗물이 원자로 쪽으로 흘러 들어가 오염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치다.

물이 흐르는 통로를 영하 30도의 얼음벽으로 차단하는 개념으로, 지하 30m 깊이에 약 1,500m 길이로 1~4호기를 둘러싼 형태로 설치돼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된 동토벽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도쿄전력은 동토벽에 힘입어 오염수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년에는 동토벽 일부 구간의 지중 온도 영상 상태가 이어지는 문제도 확인돼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 불교 지도자·평화운동가 틱낫한 스님 열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사진)이 향년 95세를 일기로 열반했다.

2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중부 도시인 후에의 푸히에우 사원에서 별세했다.

그가 프랑스에 세운 불교 명상공동체 플람빌리지 사원은 틱낫한 스님이 이날 자정에 입적했다고 고인의 트위터에 통해 밝혔다.

베트남 출신인 틱낫한 스님은 시인이자

교사, 평화운동가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 '영적 스승'으로 꼽혔다.

고인은 1926년에 태어나 23세의 나이에 승려가 됐다.

영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했던 그는 1960년대 초반 미국 프린스턴대와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불교와 관련된 강의를 했다.

지난 1963년 고국에 돌아온 뒤 반전 운동에 참여했다가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방당했다.



이후 주로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불교원리를 정치·사회 개혁에 적용하는 참여불교 운동을 전개하며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생전에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고 마틴 루서 킹 목사와 만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사후에 시신을 화장해서 전세계에 있는 플람빌리지 명상 산책로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